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유순미* · 박상봉**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을 하더라도 취약한 내부통제는 이를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경영자는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세무전략을 취함으로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일수록 BTD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약한 내부통제를 가진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이 커지게 되고 이것은 BTD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세무상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BTD도 재량적 발생액에 추가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대응치로 이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취약한 내부통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내부통제 실패는 투자자나 채권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며 기업의 더욱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이 결국 건전한 지배구조와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재량적 발생액

논문접수일: 2011년 08월 17일 수정일: 2011년 09월 21일 게재확정일: 2011년 09월 27일

* 주저자 : 국립경상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전임강사, smyu@gnu.ac.kr

** 교신저자 :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회계학과 교수, parksb@deu.ac.kr

I. 서 론

2001년 미국의 엔론사태¹⁾와 월드컴사태²⁾ 그리고 2002년 한국판 엔론사태인 SK글로벌의 분식회계³⁾는 아마 회계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분식회계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하다 할 수 있다. 기업의 분식회계사실 폭로될 경우 주가 폭락함으로써 선량한 투자자는 손실을 보게 되고 분식기업이 도산함에 따라 자금을 대어한 금융기관도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한국경제 전반적으로 큰 충격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또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에 대한 국제적 불신도 야기시키고 이것은 국가 신인도 실추와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외국자본에 대한 이자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자본 회수 및 주가가 하락과 더불어 환율인상이 됨으로써 외환보유고 감소의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게 된다. 또한, 비자금 조성을 위한 불법적인 과정(분식회계, 탈세, 돈세탁)은 고스란히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잇따른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최종산출물인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최종산출물을 산출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는 의도에서 2002년 7월 Sarbans-Oxley법(이하, SOX법)이 제정되었다.⁴⁾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잇따른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해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1) 내부고발자에 의해 회계부정 사실이 드러난 기업범죄 사건으로 미국의 7대 기업이었던 엔론사는 2001년 이 증장부를 작성, 4년간 15억 달러(1조8천억원) 정도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발각된 뒤 파산하였다. 엔론은 주가조작, 매출조작, 분식회계, 탈세, 내부자거래 등으로 인해 파산된 기업인데 제휴회사와의 상승적인 왕복 거래를 통해 가상의 거래를 조작하였다. 당시 세계최대의 건설링 회사였던 아더앤더슨(Auther Andersen) 그룹은 엔론사건으로 인해 40여건의 소송에 휘말리면서 전체 전체 2,300여 고객 가운데 785개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6000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등 현재는 공중분해된 상태이다.

2)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회계부정 사건으로 가입자 2천만명, 직원 5만4천명에 달하던 월드컴은 IT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던 2000년 9월 실적이 부진하자 분식회계를 시작하였다. 주로 네트워크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라인 코스트라는 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여 이익을 과대계상하거나 가공매출을 계상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 회계스캔들 사상 규모가 가장 큰 110억달러(13조)에 달하는 사건이다.

3) 2002년 국내 사상최대인 1조5천억원의 분식회계사건으로 수출실적이 부진하자 이로 인한 손실을 숨기기 위해 부채누락(외화외상매입금 누락 1조 2000억원과 가공외매출채권 1500억원, 부실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미설정 500억원, 재고자산과소계상 670억원의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다.

4) SOX법중에서도 내부통제와 관련된 것이 302조와 404조이다. 302조항은 경영자가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통제의 효과성을 입증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SOX 404조는 상장기업의 연간보고에 경영자의 내부통제의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포함하고 외부감사인이 경영자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요구의 증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 집중,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증대(최현섭, 2009) 등의 회계환경의 변화로 인해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의 강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면서 증권거래법, 외감법, 집단소송법 등에서 회계투명성 관련 법규가 도입되었다.⁵⁾

본 연구의 동기는 최근 회계환경의 변화로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강화된 내부통제가 결과적으로 회계부정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취약한 내부통제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으로 인하여 회계이익의 조정뿐만 아니라 과세소득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가진 기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질의 재무보고정보를 산출한다. 왜냐하면 내부통제 효율성에 대한 보고의무는 기업으로 하여금 강력한 회계통제를 만들고 높은 수준의 재무보고정보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회계인프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Iserhoff et al., 2006, p.2). 취약한 내부통제를 가진 기업의 경영자는 좀 더 쉽게 내부통제에 압력을 가할 수 있고 기회주의적인 재무보고목적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편의를 가진 재무제표를 산출할 수 있다(김정교 등, 2009).

또한,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목적으로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키면 일반적으로 과세소득도 증가하여 법인세 추가부담을 수반하게 되고 과세소득의 커지게 된다. 하지만 경영자는 회계이익을 높게, 과세소득은 낮게 보고하는 전략을 취하려 할 것이다. 경영자는 재무와 세무보고를 할 때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문제에 직면하며, 재무와 세무보고 결정에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대체적인 조정수단을 모두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경우에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목적으로 보고이익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세무전략을 이용할 경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도 커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취약한 내부통제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과 세무전략을 취할 경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5)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회계개혁법으로 증권거래법에서는 공시서류(유가증권신고서,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대한 CEO 인증 의무화 및 허위기재 등에 따른 대표이사 및 담당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부과하고 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외부감사인으로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서는 공인회계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감사업무 제한하고 회계법인인 주식 소유 및 출자 등 감사업무 제한하였다. 집단소송법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의 배상책임과 주가조작과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및 분식회계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단,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및 분식회계에 대해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커질 수 있다(박종일·김경호,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취약한 내부통제체도로 인하여 경영자가 내부통제에 압력을 가하고 이것이 결국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조정 대용치로 보았는데 비해 과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의 결과로 보아 내부통제가 취약할 때 세무상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일수록 BTD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자의 회계이익조정을 통제된 후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취약한 내부통제를 가진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이 커지게 되고 이것은 BTD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세무상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BTD도 재량적 발생액에 추가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 대용치로 이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조차 취약한 내부통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내부통제 실패는 투자자나 채권자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며 기업의 더욱 효율적인 내부통제체도를 구축이 결국 건전한 지배구조와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존재하는 기업일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가 증가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의 결과를 이익조정으로 보고 이를 주로 재량적 발생액을 통하여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익조정의 측정치인 재량적 발생액은 외부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하고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과정에 따른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의 문제를 가진다. 그러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 BTD) 등의 세무관련 이익측정치는 재량적 발생액과는 달리 추정과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측정오차의 문제가 없고, 재무제표나 각주를 통하여 외부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이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쉽게 관찰가능한 변수들이다(Hanlon, 2005; Lev and Nissim, 2004; 박종일과 전규안, 2008). 따라서, 그동안 측정오차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었던 재량적 발생액 대신 좀 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BTD를 이용하여 직접 검증함으로써 내부통제실패를 객관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가설을 도출하

고, 제 III장에서는 연구 설계를 제시한다. 제IV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국은 Enron scandal 등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직후 2002년 7월에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Sarbanes-Oxley Act(SOX)법안 제정하였다. SOX 302조 및 404조에서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경영자 및 감사인의 내부통제의 인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내부통제제도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SK글로벌과 같은 회계스캔들을 계기로 하여 여러 회계제도 개혁법안이 법제화 되었고 그중의 하나가 SOX 302조 및 404조와 유사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2조 2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로 이사회, 경영진 등 모든 조직구성원에 의해 회계기간중에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운영목적이나 법규준수목적과 관련된 통제절차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통제절차도 내부통제절차에 포함된다. 상장 및 등록기업은 매사업연도마다 사업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CEO 및 CFO의 인증을 의무화하며,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검토의견에 반영해야 하고 기업은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상근이사 중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이사회 및 감사에게 운영상황 보고하여야 한다.

Ge and McVay(2005)는 SOX 404조가 적용되기 전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중요한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의 취약점 내용을 최초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493가지의 중요한 취약점을 특정계정 관련 취약점, 종업원 교육훈련 관련 취약점, 결산보고 및 회계정책의 적용 관련 취약점, 수익 인식 관련 취약점, 업무분장 관련 취약점, 계정의 조정 관련 취약점, 종속회사 관련 취약점, 상급경영자 및 기술적 문제의 순서로 분류하였다. 이 중 특정계정 관련 취약점이 119개(24%), 종업원 교육훈련 관련 취약점 82개(17%)로 가장 많았다.

또한 사업내용이 복잡할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이 낮을수록, 외부감사인이 대형회계법인일수록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이 더 많이 보고되는 경향이 있었다.

Doyle et al.(2007)은 내부통제 취약점과 발생액의 질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들은 SOX 302조에 따른 내부통제 취약점 공시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낮은 발생액의 질을 보였고, 이러한 관계가 특정계정수준의 취약점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수준의 취약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SOX 404조에 따른 내부통제 취약점의 공시기업과 비공시기업 간에는 발생액의 질의 차이가 없었다. Ashbaugh-Skaife et al.(2008)은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들은 보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낮은 발생액의 질을 가지며, 이전년도에 내부통제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한 기업 중 다음년도에 그 취약점을 개선한 기업은 개선하지 않았던 기업에 비해 발생액의 질이 증가함을 보였다. Cohen et al.(2008)은 SOX 시행 이후와 이전을 구분하여 스톡옵션 보상에 따른 이익조정유인을 통제한 후 발생액 기준 이익관리와 실물이익관리(real earnings management)를 비교한 결과 1987년부터 SOX 시행 직전까지 발생액 기준 이익조정은 증가하다가 SOX 시행 이후에는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였다. 또한 실물이익관리도 SOX 시행 이전에는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SOX 시행 이후 기업들이 이익조정의 방법을 발생액조정에서 실물이익관리로 전환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신현걸(2007)은 2005년도 우리나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약 1.7%에 해당되는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약 1.9%에 해당되는 기업은 검토범위 제한으로 감사인이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또한 중요한 취약점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조직과 문서화의 미비가 가장 많았으며, 회계자료의 수집 및 회계처리에 대한 통제절차의 취약점이 그 다음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과 기업의 재무적 특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낮을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우·유경연(2006)은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무 시행 이전연도에 비해 이후연도의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명곤 등(2007)은 2005 및 2006년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의 특성, 취약점 보고기업의 이익조정 여부 및 투자자가 느

끼는 정보위험에 대한 취약점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업규모와 수익성, 재무건전성, 감사법인의 규모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은 이익을 조정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투자자의 정보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정교 등(2009)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발생액의 질이 낮고 취약점이 개선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개선연도에 발생액의 질이 높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절차상의 오류가 감소하여 취약점이 개선된 기업은 개선되지 않은 기업보다 발생액의 질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특정계정수준의 취약점보다 기업수준의 취약점이 좀 더 심각한 재무보고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 BTD)

기업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정확히 계산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 비하여,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확한 과세소득과 세액산정에 관한 재무적 보고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경오, 2004).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회계기준과 세법규정의 제도적 차이에 따른 원인과 경영자의 재량권 행사여부에 따른 원인으로 나누어진다.(Manzon and Plesko, 2002). 제도적 차이에 따른 원인은 첫째, 조세 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로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세법상 특혜나 불이익을 부여하여 발생한다. 둘째, 손익인식기준에 의한 차이로서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수익을 실현주의에 의해 비용은 관련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나, 세무회계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함에 따라서 발생한다. 셋째, 자산·부채 평가방법의 차이로서 자산·부채의 일부 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달리 규정함에 따라 발생한다. 넷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개념에 의한 차이로서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 증가만을 회계이익에 포함시키나, 세무회계에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순자산증가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킴으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한다. 한편, 이러한 BTD는 경영자의 재량권행사여부에 따라 그 차이가 발생

하기도 한다. 즉 이익조정을 통한 보고이익의 증감, 과세소득유연화 동기에 따른 과세소득의 증감이 BTD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박종국·문상혁, 2005).

Manzon and Plesko(2002), Mills and Newberry(2001)는 회계이익은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이나 추정에 있어 과세소득보다 더 많은 재량을 포함하고 있어 고의적인 조작의 여지가 더 많은데 비해 과세소득은 회계이익에 비해 경영자의 재량이 개입의 여지가 적어 기업의 진실한 경영성과를 반영하는데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며 회계이익이 가진 정보를 포함하여 회계이익이 제공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Phillips et al.(2003)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반영된다고 예상하였다. 이들은 세법하에서의 엄격한 규정보다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하에서 경영자가 더 많은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연법인세비용(deferred tax expense)을 이용하여 기업의 이익조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의 가정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일시적 차이는 주로 경영자의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회계상 발생액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이연법인세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박종일과 김경호(2002)는 이익조정의 추정치인 재량적 발생액과 BTD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관찰함으로써 BTD 정보는 이익의 질이 반영된 정보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기 등(2005)은 Phillips et al.(2003)의 연구와 유사한 분석을 통해 BTD 관련 추정치가 개별기업의 이익조정을 탐지하는데 있어 유용하며, 이 중에서 BTD,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 재량적 차이, 평가 및 감액관련 재량적 차이가 유용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종권과 윤성수(2006)는 Phillips et al.(2004)의 연구를 확장하여 BTD를 감가상각, 퇴직급여충당금, 재고자산, 발생액, 지분법주식, 대손충당금, 기타로 구분한 후 이 중에서 재고자산, 지분법주식, 대손충당금 항목이 이익조정에 대한 설명력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3. 가설설정

효율적인 내부통제환경을 가진 기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질의 재무보고를 산출한다. 왜냐하면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의무는 기업으로 하여금 강한 회계통제를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재무보고의 질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회계인

프라에 투자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내부통제의 취약점은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shbaugh-Skaife, 2008).

내부통제의 취약점은 경영자나 종업원에 의한 의도적인 허위표시에 대한 감독기능의 약화로 결국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도적인 허위표시는 통상 당기이익을 과대계상하지만, big bath 등을 통하여 당기이익을 기회주의적으로 과소계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회계선택에서 경영자의 재량권 행사는 각종 충당부채,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과 같은 중요한 회계추정치를 기록할 경우 발생액 조작을 통한 재무제표의 허위표시를 가능하도록 한다. 게다가 불완전한 업무분장으로 인한 취약한 내부통제는 모니터링을 위한 충분한 인원 부족이나 최고경영자에 의한 사후조치 결여 때문에 종업원에 의한 자산 횡령과 기록 조작 등을 적발하지 못할 수 있다(김정교 등, 2009). 따라서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을 하더라도 취약한 내부통제는 이를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경영자는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편, 회사가 주주에게 보고하는 이익과 납세목적으로 세무당국에 보고하는 이익간에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재무보고목적과 세무보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회계절차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두 보고 목적상의 회계절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절세효과를 가져오는 거래가 동시에 회계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가 단순히 세금비용만을 최소화하는 것은 효과적인 세무계획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세금비용만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은 종종 인센티브상의 문제나 규제에 의한 비용 등의 비세금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기업의 전체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박종일·김경호, 2002).

이렇듯 경영자가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면 일반적으로 과세소득도 증가하여 법인세 추가부담을 수반하게 되어 과세소득의 커지게 된다. 하지만 경영자는 회계이익을 높게, 과세소득은 낮게 보고하는 전략을 취하려 할 것이다. 경영자는 재무와 세무보고를 할 때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문제에 직면하며, 재무와 세무보고 결정에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대체적인 조정수단을 모두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경우에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목적으로 보고이익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세무전략을 이용할 경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도 커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취약한 내부통제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커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더 크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BTD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먼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BTD가 더 크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식(1)과 식(2)를 이용한다.

$$BTD_{it} = \gamma_0 + \gamma_1 ICW_{it} + \gamma_2 SIZE_{it} + \gamma_3 LEV_{it} + \gamma_4 CAP_{it} + \gamma_5 \Delta NI_{it} + \gamma_6 GRW_{it} + \gamma_7 ROA_{it} + \gamma_8 \sum_{i=1}^{18} IND_{it} + \gamma_9 \sum_{t=1}^2 YD_{it} \quad (1)$$

$$BTD_{it} = \gamma_0 + \gamma_1 ICW_{it} + \gamma_2 DA + \gamma_3 SIZE_{it} + \gamma_4 LEV_{it} + \gamma_5 CAP_{it} + \gamma_6 \Delta NI_{it} + \gamma_7 GRW_{it} + \gamma_8 ROA_{it} + \gamma_9 \sum_{i=1}^{18} IND_{it} + \gamma_{10} \sum_{t=1}^2 YD_{it} \quad (2)$$

여기서,

- 주) BTD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ICW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더미변수. 취약점 보고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DA : 재량적발생액
 SIZE : 기업규모. 당기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LEV : 부채비율 = 부채총액 / 자본총액
 CAP : 자본집약도. 유형자산/기말총자산
 ΔNI : 당기의 순이익변동이 양(+)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GRW : 매출액성장률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ROA : 총자산이익률.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IND : 산업더미
 YD : 연도더미

모형의 종속변수는 BTD(Book-tax difference)이고, 검증변수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internal control weakness:ICW)이 사용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공시하는 기업의 BTD는 높을 것이므로 ICW의 계수추정치(γ_1)는

양(+)⁶⁾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식(1)은 취약한 내부통제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즉, 경영자가 자본시장압력에 의해 회계이익을 보고하면 법인세부담이 증가하고, 법인세최소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세무전략을 이용할 경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도 커질 것이라는 것을 검증하는 모형이다. 한편, Phillips et al.(2001)과 Mills and Newberry(2001)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정보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경영자는 기업의 실제이익이 감소할 경우 자본시장압력에 의해서 회계이익을 증가시킬 유인이 존재하며, 이 경우 엄격한 세법보다는 재량권이 더욱 많은 GAAP하에서 재량적 발생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재량적 발생액의 증가는 회계이익의 증가뿐만 아니라 과세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식(2)는 이러한 경영자의 회계이익 조정을 통제된 후 취약한 내부통제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2. 변수의 정의

2.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가설 1의 검증변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ICW)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하는 경우와 검토의견 표명거절을 포함하여 측정한다. 따라서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한다.

2.2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book-tax difference, BTD)⁶⁾

BTD는 재무보고 이익인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인 과세소득의 차이로서, 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감사보고서의 주석을 통해 직접 계산해 낸 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측정하였다.

6) 주인기 등(2005)에 의하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재량적 차이(Book-Tax Discretionary Difference)에 대해서도 이익조정의 측정치로서 유용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이익조정의 동기 중 적자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에 국한된 것으로 평가 및 감액관련 재량적 차이(재고자산, 장기투자자산, 충당금 관련(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상각관련(유형자산, 무형자산) 중 어떠한 유형의 재량적 차이가 유용한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재량적 차이(Book-Tax Discretionary Difference)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BTD를 이용하였을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BTD_{it} = (BI_{it} - TI_{it}) / A_{it-1}$$

BTD	: BTD
BI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TI	: 각사업년도 소득
A_{t-1}	: 기초총자산

2.3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발생액 예측모형인 Jones 모형(1991)과 수정 Jones 모형(1996)은 극단적인 성과를 가진 표본에 적용할 경우 모형설계오류(mis-specification)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과와 발생액간의 상관성은 이익관리검증에서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Dechow et al., 1996; 김정교 등,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othari et al.(2005)에 의해 제안된 성과조정모형을 재량적 발생액의 측정치를 얻기 위해 사용한다. 이들은 수정 Jones모형에 상수항과 총자산이익률(ROA)을 포함할 경우 모형의 표기오류가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제시하는 모형에 근거한 재량적 발생액은 다음 모형에 의해 측정된다. 이때, r-student의 절대값이 2이상인 경우와 산업내 표본수가 15개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frac{TA_{it}}{A_{it-1}} = \gamma_0 + \gamma_1 \frac{1}{A_{it-1}} + \gamma_2 \frac{(\Delta REV_{it} - \Delta REC_{it})}{A_{it-1}} + \gamma_3 \frac{PPE_{it}}{A_{it-1}} + \gamma_4 ROA_{it} + \epsilon_{it} \quad (3)$$

$$DA_{it} = \frac{TA_{it}}{A_{it-1}} - \left[\hat{\gamma}_0 + \hat{\gamma}_1 \frac{1}{A_{it-1}} + \hat{\gamma}_2 \frac{(\Delta REV_{it} - \Delta REC_{it})}{A_{it-1}} + \hat{\gamma}_3 \frac{PPE_{it}}{A_{it-1}} + \hat{\gamma}_4 ROA_{it} \right] \quad (4)$$

여기서,

DA	: 재량적 발생액
TA	: 총발생액(=t기의 당기순이익 - t기의 영업현금흐름)
ΔREV	: 매출액 변화 (=t기의 매출액 - t-1기의 매출액)
ΔREC	: 매출채권의 변화 (=t기의 매출채권 - t-1기의 매출채권)
PPE	: 유형자산
ROA	: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기초총자산)
A_{t-1}	: 기초총자산
ϵ	: 오차항

2.4 기타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든 모형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 다양한 통제변수가 포함된다. Watts and Zimmerman(1986)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기업규모(SIZE)를 모형에 추가하고, 계수부호는 음(-)일 것으로 예상된다. Mills and Newberry(2001)는 기업의 부채계약의 위반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부채비율을 대응변수로 이용하였다. 이들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과세소득에 비해 회계이익을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채비율(LEV)의 계수부호는 양(+)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집약도(CAP)는 기업간 자본집약도(capital intensity)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모형식에 포함하였다. Mills and Newberry(2001)는 LTD와 유형자산의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감가상각자산이 증가하여 경영자는 회계처리방법, 회계추정 및 원가배분방법의 기회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LTD와 CAP간에 양(+)의 관련성을 예상하였다. 따라서 자본집약도(CAP)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Burgstahler and Dichev(1997)은 경영자는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있다고 보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순이익변동이 양인 기업(ΔNI)의 계수값은 양(+)의 관련성이 예상된다. 또한 총자산이익률(ROA)이 클수록 기업의 이익조정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에 ROA계수는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순석·이건열(2001)에 의하면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보다 많은 투자기회로 인하여 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므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보고이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장률(GRW)을 포함하였다. 산업더미(IND)는 각 산업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연도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더미(YD)도 추가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표본 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에 필요한 재무자료는 TS2000 및 KIS-Value에서,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검토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수집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 이후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므로 2005년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나 2005년은 제도의 시행 첫해이고 모범규준이 적용되기 전이므로 운영 및 검토에 많은 잡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기간을 2006년부터 2009년으로 제한하였다. 표본기업은 금융업을 제

외하고 2008년말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표본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추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 ① 결산월이 12월 말이 아닌 기업 제외
- ② 관리대상 기업이나 자본잠식기업 제외
- ③ BTD 변수 및 기타 변수추정을 위한 불충분한 데이터를 가진 기업 제외

금융업, 지주회사와 공익성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가 심하고 동일한 계정과목이라도 일반 제조기업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므로 회계자료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에서 제외시켰다. 결산일을 12월 말로 제한한 이유는 표본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을 연도별로 추정하는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제거하고 회계기간을 기업 간 일치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영 성과와 관련하여 분석과정에 존재할 수 있는 개입효과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또한 관리대상 기업이나 자본잠식기업은 비정상적인 발생액 산출기업이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분석 자료의 안전성을 위해 BTD,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및 기타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가 하나라도 없는 표본은 제외하였다. <표 1>은 표본선정과정을 보여준다.

<표 1> 표본선정결과

선정기준	2006	2007	2008	합계
최초 표본: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기업	1,441	1,518	1,612	4,571
제거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65)	(62)	(64)	(191)
관리대상이나 자본잠식 기업	(11)	(6)	(2)	(19)
BTD,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및 재무자료 누락기업	(1,008)	(1,120)	(1,494)	(3,622)
최종표본	357	330	52	739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1.1 기술통계량

<표 2>는 표본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와 내부통제 취약점

및 기업특성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표시한다. 각 극단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특성변수의 측정치를 각각 1%와 99% 수준에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검증모형의 종속변수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의 평균은 0.0042, 중위수는 0.0012이다. 주요 검증변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더미변수(ICW)의 평균은 0.0264로 표본기업의 2.64%만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적 발생액(DA)의 평균은 0.0031(중위수: 0.0013)이고, 기업규모(SIZE)의 평균은 25.4506(중위수: 25.5181)이고, 부채비율(LEV)의 평균은 0.4451(중위수 0.4498), 자본집약도(CPA)의 평균은 0.3215(중위수 0.3082)이고, 당기의 순이익 변동이 양(+)인 기업의 평균은 0.2489로 나타나 표본기업의 24.89%가 전기에 비해 당기에 당기순이익이 상승하였다. 또한 표본기업의 평균 매출액성장율은 16.93%(중위수 8.34%)이고 총자산이익률은 3.01%이다. 따라서 기업규모(SIZE)와 부채비율(LEV), 자본집약도(CAP), 총자산이익률(ROA)은 대칭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비대칭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다.

<표 2>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25%	50%	75%	최대값
BTD	0.0042	0.0315	-0.1678	-0.0016	0.0012	0.1666	0.5475
ICW	0.0264	0.104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DA	0.0031	0.089	-0.2983	-0.0472	0.0013	0.0498	0.3552
SIZE	25.4506	1.5259	20.9911	20.6182	25.5181	216.1459	30.4845
LEV	0.4451	0.1839	0.0176	0.3116	0.4498	0.5865	0.8221
CAP	0.3215	0.1869	0.0102	0.1868	0.3082	0.4402	0.8717
ΔNI	0.2489	0.4328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GRW	0.1693	0.5189	-0.7190	-0.0313	0.0834	0.2353	3.5578
ROA	0.0301	0.0952	-0.5871	0.0078	0.0321	0.0684	0.6076

- 주) BTD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 ICW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더미변수. 취약점 보고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DA : 재량적 발생액
- SIZE : 기업규모. 당기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 LEV : 부채비율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CAP : 자본집약도. 유형자산/기말총자산
- ΔNI : 당기의 순이익변동이 양(+)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GRW : 매출액성장률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ROA : 총자산이익률.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IND : 산업터미
 YD : 연도터미

1.2 상관관계분석

<표 3>은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종속변수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와 검증변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ICW) 간의 상관관계는 0.0116이고 5% 수준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될 수 있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기업규모(SIZE)는 종속변수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와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존재하고, 부채비율(LEV) 및 양의 당기순이익 변동기업(Δ NI)은 종속변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로 인하여 나타날 다중공선성문제의 심각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변수의 분산팽창계수(VIF)를 조사한 결과 최소 1.07(ICW)에서 최대 1.53(CAP)로 나타나 다중공선성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변수간의 상관관계

	BTD	ICW	DA	SIZE	LEV	CAP	Δ NI	GRW
ICW	0.0116 **							
DA	0.2723 ***	0.0722 **						
SIZE	-0.2248 ***	-0.0604	-0.0335 **					
LEV	0.1388 ***	0.0275	0.0249 *	-0.0151				
CAP	0.0233 *	0.0457	0.087 ***	-0.0088	0.0181			
Δ NI	0.2500 ***	0.0367 ***	0.289 ***	-0.2468 ***	0.1050 **	0.1130 **		
GRW	0.532 **	-0.159 **	0.0801 ***	0.057 *	0.115 **	0.011 *	-0.166 **	
ROA	0.227** ***	0.025 **	-0.0317 **	-0.070 **	-0.038 **	-0.050 *	-0.143 **	0.128 **

주1) ***, **, *는 각각 1%, 5%, 10%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주2) BTD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ICW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터미변수. 취약점 보고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DA : 재량적발생액
 SIZE : 기업규모. 당기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LEV : 부채비율 = 부채총액 / 자본총액

CAP	: 자본집약도, 유형자산/기말총자산
ΔNI	: 당기의 순이익변동이 양(+)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GRW	: 매출액성장률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ROA	: 총자산이익률,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IND	: 산업더미
YD	: 연도더미

2. 회귀분석 결과

<표 4>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BTD)의 차이 간의 회귀분석 결과를 표시한다. 먼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회계이익조정이 통제되지 않은 식(1)에서 주된 검증변수인 ICW의 계수값은 0.0089로서 기대와 동일한 부호의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회계이익조정이 통제된 식(2)에서도 ICW의 계수값은 0.0126으로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존재하는 기업일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경영자의 GAAP의 회계이익조정 뿐만 아니라 세무전략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취약한 내부통제를 가진 기업의 경영자는 좀 더 쉽게 내부통제에 압력을 가할 수 있고 기회주의적인 재무보고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편의를 가진 재무보고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목적으로 보고이익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회주의적 세무전략을 이용할 경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도 커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규모(SIZE)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와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가지므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증가한다는 규모효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채비율(LEV), 양의 순이익 변동(ΔNI) 및 총자산이익률(ROA)는 예측부호와 동일하게 종속변수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전기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일수록, 총자산이익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회귀분석 결과

$$BTD_{it} = \gamma_0 + \gamma_1 ICW_{it} + \gamma_2 DA + \gamma_3 SIZE_{it} + \gamma_4 LEV_{it} + \gamma_5 CAP_{it} + \gamma_6 \Delta NI_{it} + \gamma_7 GRW_{it} + \gamma_8 ROA_{it} + \gamma_9 \sum_{i=1}^{18} IND_{it} + \gamma_{10} \sum_{t=1}^2 YD_{it}$$

변수	기대부호	식(1)		식(2)	
		계수값	t 값	계수값	t 값
절편		0.1171	2.59***	0.0890	2.84***
ICW	(+)	0.0089	2.67***	0.0126	2.37***
DA	(+)			0.0562	2.25***
SIZE	(-)	-0.0042	-3.81***	-0.0036	-4.68***
LEV	(+)	0.0263	2.76***	0.0172	2.50***
CAP	(+)	0.0047	0.47	0.0025	0.53
NI	(+)	0.0158	4.02***	0.0524	5.24***
GRW	(+)	0.0127	1.09	0.0212	1.56
ROA	(+)	0.0163	2.84***	0.0221	3.28***
IND		포함		포함	
YD		포함		포함	
표본수		739		739	
F값		2.53	***	10.64	***
수정 R ²		0.0828		0.1027	

주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주2) 변수 정의는 <표 5>를 참조

V. 결 론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공시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일수록 BTD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약한 내부통제를 가진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이 커지게 되고 이것은 BTD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세무상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BTD도 재량적 발생액에 추가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대응치로 이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조차 취약한 내부통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내부통제 실패는 투자자나 채권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며 기업의 더욱 효율적인 내부통제체도를 구축이 결국 건전한 지배구조와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존재하는 기업일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가 증가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 측정 오차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었던 재량적 발생액 대신 좀 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BTD를 이용하여 직접 검증함으로써 내부통제실패를 객관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2006-2008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 표본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으로 인하여 연구결과에 편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자료수집의 한계로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법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를 위하여 비상장기업까지 표본을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고종권 · 윤성수(2006), “채무이익-세무이익 차이의 세부구성항목을 이용한 전자회피 이익조정 분석”, 「세무학연구」 23(3); 65-101.
2. 정교 · 유순미 · 김현진(200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발생액의 질”, 「회계저널」 18(4);33-64.
3. 김정교 · 이진수, 라기레(2010), “대체적 발생액 예측모형의 모형표기 타당성과 검증력 평가”. 「경영연구」 25(1): 81-121.
4. 박종일 · 김경호(2002), “세금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27(2); 81-115.
5. 박종일 · 전규안(2008), “감사품질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3(2); 65-109.
6. 신현걸(2007),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 현황 분석”, 「회계저널」, 제16권, 제1호: 107-128.
7. 조현우 · 유정연(2006),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정보의 신뢰성”, 「회계와 감사연구」, 제44호: 119-145.
8. 윤순석 · 이건열(2001), “유상증자기업의 이익조정”, 「회계학연구」, 제26권, 제4호: 1-25.
9. 이경오(200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세무조정과 수정회계를 중심으로”, 「경영정보연구」, 제14호; 101-115
10. 이명곤 · 최상태 · 장석진(200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이익조정 및 정보위험”, 대한경영학회 하계학술연구발표대회: 9-39.
11. 주인기 · 최원욱 · 염지인(2005), “이익조정 행위의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0권, 제2호: 237-275.
12. 최현섭(2009), “지배구조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 「경영정보연구」 제 28권, 제4호: 45-65.
13. Ashbaugh-Skaife, H., D. W. Collins, W. R. Kenney, Jr., and R. LaFond(2008), “The effect of SOX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and their remediation on accrual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83(1): 217-250.
14. Burgstahler D. and I. Dichev(1997),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ase and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

- 99-126.
15. Cohen, D. A., A. Dey and T. Z. Lys(2008), "Real and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in the pre- and post-Sarbanes-Oxley periods", *The Accounting Review* 83(3): 757-787.
 16. Dechow P. R. Sloan and A. Sweeny(1996), "Causes and Consequences of Earnings Manipulation: an Analysis of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April): 193-225.
 17. Doyle, J., W. Ge, and S. McVay(2007), "Accruals quality and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determinants of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2(5), (October): 1141-1170.
 18. Ge, W, and S. McVay(2005), "The disclosure of material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after the Sarbanes-Oxley Act", *Accounting Horizons* 19: 137-158.
 19. Hanlon, M.(2005), "The persistence and pricing of earnings, accrual and cash flows when firms have large book-tax difference", *The Accounting Review* 80(1): 137-166.
 20. Kothari S. P., A. J. Leone. and C. E. Wasley(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163-197.
 21. Lev, B. and D. Nissim(2004), "Taxable Income, 'Future Earnings, and Equity Value", *The Accounting Review* 79: 137-166.
 22. Manzon, G. B. and G A. Plesko(2002), "The relation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measures of income", *Tax Law Review* 55: 175-214.
 23. Mills, L. F., and K. J. Newberry(2001), "The influence of tax and nontax costs on book-tax reporting difference; public and private firm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3(1): 1-19.
 24. Phillips, J., M. Pincus, and S. O. Rego(2003), "Earnings management: 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The Accounting Review* 78(2): 491-521.
 25. Watts, R. and J. Zimmerman(1986), *Positive Accounting Theory*.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Abstract

The Effect of Internal Control Weaknesses on Book-Tax Difference

Yu, Soon-Mi* · Park, Sang-Bong**

Recent academic studies have investigated book-tax differences as an indicator of earnings management. Tax accounting texts claim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pre-tax financial reporting earnings and taxable income can provide information about current earnings, and the large differences between book and taxable incomes are an indicator of low-quality financial reporting earning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internal control system over book and tax difference using the KOSPI and KOSDAQ firms from 2006 to 2008.

The empirical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a weakness of internal control system being associated with higher book-tax difference. That means a firm which has material weakness i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llows for more malpractice. In addition to this, If the managers tries to the efficient tax decrease strategy, book-tax difference can be large. Which in turn leads us to observe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weakness of internal control system and intensity of book-tax difference. Overall, we interpret this evidence as indicating that the failure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can effect not only investors and creditors but also tax authorities. And It emphasizes that a more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linked with sound corporate governance.

Key Words : internal control weakness, book-tax difference, discretionary accrual, earnings management

* A Full 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Accounting,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A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Eui University.